

경향신문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024면 사람

‘젊은 연구자상’에 신원재 교수

부산대는 신원재 전자공학과 교수(사진)가 국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젊은 연구자상은 IEEE 정보통신분과 위원회에서 35세 이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수와 연구원 중 최근 3년간 가장 탁월



한 연구업적을 낸 이에게 주는 상이다.

무선통신 이론과 머신러닝 분야 전문가인 신 교수는 지금까지 관련 논문 33편을 SCI 국제저널에

게재했고 등록된 국내외 특허가 100건이 넘는다.

국제신문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020

면 사람들

부산대 전자공학과 신원재 교수

IEEE 아태평양 젊은 연구자상



부산대학교는 전자공학과 신원재(사진)교수가 국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제15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됐

다고 6일 밝혔다. ‘IEEE 젊은 연구자상’은 IEEE 정보통신분과위원회에서 35세 이하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수 및 연구원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장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신 교수는 무선통신 이론과 머신러닝 분야 전문가로, 지금까지 관련 논문 33편을 SCI 국제저널에 게재했고 등록된 국내외 특허가 100건이 넘을 정도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 향후 발전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IEEE는 전기·전자·컴퓨터·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대 권위와 규모를 가진 학회로 현재 약 160개국 4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영지기자